

■ 박근종 칼럼

## 혼란과 담보의 불확실성 딛고 붉은 말처럼 도약하는 2026년 염여가야



주홍빛 비단 안개 걷히고 대망(大望)의 병오(丙午)년 새해가 힘차게 솟아올랐다. 열정과 활력 그리고 도전과 도약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달리는 말은 밸롭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각오와 자세로 갈수록 험해질 글로벌 각축 속에서 국가경쟁력 또한 빛을 더하리라는 희망찬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무엇보다 붉은색은 강한 기운을 상징하고 맑은 질주하는 속성이어서 불과 불이 더해진 데다 열정을 상징하는 불(內의 기운과 자유와 속도를 상징하는 불(午)의 기운이 상승작용을 한다는 2026년 '붉은 말의 해'는 국민의 기운을 살리고, 에너지가 넘쳐나 도약하는 한해가 되리란 기대가 크다.

특히 대한민국이 지난 몇 년의 혼란과 담보의 불확실성을 딛고 도약할 수 있느냐가 가늠될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결단코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세밀에 환율 불안정 속에서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수출도 역대 최고인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치는 대립과 반목 속에 머물러 있고 경제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외교·안보 환경 역시 혼란한 건 오직 '불확실성' 뿐일 정도로 변수가 많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역사의 흐름에는 고비가 있고 세월의 흐름에는 마디가 있다. 이러한 고비와 마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느냐에 따라 성과가 갈린다. 따라서 고비와 마디에 얹힌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만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대안을 내놓는 과정이 정치인데 여·야는 여전히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며 극단의 여론만을 대변하고 있다. 이제 맹 대통령이 통합을 역설하고 있으나 국회에선 울림이 없어 보인다.

정치가 계속 국민을 배제한 채 지금처럼 정쟁에만 골몰한다면 위기 극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고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걱정

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은 정치 지도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는 시기였다. 올해 예정된 지방선거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일꾼을 제대로 뽑아야만 한다.

게다가 경제·무역 환경과 외교·안보 지형은 급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매매시장 침체와 전세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양극화의 심화로 여전히 혼란스럽고, 1,400원대 후반의 고환율은 '뉴노멀(New Normal |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고착화(固着化)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양극 체제처럼 비치는 무역 환경도 의제별로 이해관계가 나뉘어 단순하게 접근하기 어렵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만큼 확고한 한·미 동맹 강화를 기본 축으로 삼되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외 전략이 화급하다.

저출생 문제와 조고령사회의 노인빈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과제로 급부상했고,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시급히 이뤄내야 하는 당면현안이 아닐 수 없다.

우왕좌왕하는 교육 개혁, 혼란의 불씨만 여전한 의료 개혁, 논란의 연속인 검찰·사법 개혁 등의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빈부 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무리 쪼개고 아끼도 간극(間隙)은 되려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2월 4일 발표한 '2025년 기계 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별 순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가 전년 대비 0.014 상승한 0.625로 조사돼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자산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실질 재산으로,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계층 간 재산 불평등이 크다는 의미다. 가구별 순자산의 불평등 심화는 집값이 큰 뜻을 했다. 상위 20%의 부동산 평균 자산(13억 3,828만 원)은 하위 20%(1,038만 원)의 129.6배였다.

지나해 128.7배보다 커졌다. 국가 견인의 차세대 주축인 30대 이하의 순자산은 전 연령에서 유일하게 감소(0.9%) 했다. 30대 이하의 순자산 감소 원인은 월세 부담 및 주택 담보 대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일보가 지난 1월 1일 거시경제 전문가 4인에게 물은 결과 올해 한국 경제의 불안 요소로 '슈퍼 에프(SUPER-F)'를 꼽았다. 사회 양극화(Social Polarization)와 미국(United

States), 생산성(Productivity), 환율(Exchange Rate), 부동산(Real Estate), 금융(Finance) 등 각 불안 요인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합한 개념이다. 지난해 사상 최초 7,000억 달러 수출, 코스피 4,200 돌파와 같은 희소식에 취해 있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먼저 '사회 양극화'를 불안 요소의 하나로 평가했다. 기업 간 양극화는 가계 자산이 투입된 주식시장에 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반도체와 비반도체 간 'K자 곡선'이 그려지면 문제가 된다.

석유화학·종목 등의 주가가 실적 부진으로 더 빠지면 가계 양극화는 더 심화할 수 있다.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 해 수출에서 15대 주요 품목 가운데 풀러스(+)는 반도체·선박 등 6개 품목뿐이다. 석유화학·철강 등 9개 품목은 수출액이 오히려 'マイナス(-)'로 줄었다.

통상 용어는 의식을 드러낸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6,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지난 12월 4일 발표했는데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 1위로 '빈부 격차(23.2%)'가 꼽혔다. 직접 조사에서 1위였던 '일자리 문제(22.9%)'를 앞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어지며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특수선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주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설명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 우리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반도체 호조에 지표상 성장이 예상되지만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하면 실제 성장률은 훨씬 낮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월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경제 전망의 핵심 키워드로 체감 경기와의 괴리를 꼽았다. 그는 "올해 성장률이 1.8%로 잠재성장을 수준에 균접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반도체 경기가 이끄는 IT 부문의 성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을 딛고 일어선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뿐이다. 정부·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협력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만 한다.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에 병오(丙午)년 붉은 말의 새해는 대지를 박차고 드넓은 광야를 힘차게 내달리는 적토마(赤兔馬)의 역동적이이고 유후(熊侯)의 기상과 자세로 대도약의 주춧돌로 승화시킨다. 2026년 한 해로 혼란과 담보의 불확실성을 과감히 딛고 붉은 말처럼 도약하는 2026년을 염여가야만 한다.

무엇보다 규제 혁파와 구조개혁으로 성장한 혁신기업들이 증시를 견인하는 주역이 돼야 코스피와 원화의 동조화를 다시 이룰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격을 크게 실추시키는 최악의 사건이었으나 이를 국민의 힘으로 이겨낸 것은 외려 우리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주는 계기로 승화됐다.

한편 한국 경제가 내년 반도체와 조선 업종 회복세에 힘입어 1.7%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성장 동력이 일부 업종에 쏠리며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7%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1.0%)보다 회복된 수치지만, 잠재성장률(2.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와 조선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돼 내년 수출이 전년 대비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어지며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특수선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주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설명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 우리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반도체 호조에 지표상 성장이 예상되지만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하면 실제 성장률은 훨씬 낮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월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경제 전망의 핵심 키워드로 체감 경기와의 괴리를 꼽았다. 그는 "올해 성장률이 1.8%로 잠재성장을 수준에 균접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반도체 경기가 이끄는 IT 부문의 성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라고 분석했다.

이 전시에 나온 안소영 작가의 '백지 위입장에 관한 단상#1', '백지 위입장에 관한 단상#2'는 말을 탄 여인과 숲이 나오는 르네 마그리트의 '백지 위입장'(Le Blanc-Seing)을 오마주한 연작이다.

눈이 쌓인 자작나무 숲으로 말 마리가 걸어가고 있다. 배경은 그믐 달이 뜬 밤이지만 말의 몸에는 각각 파란 하늘과 석양이 펼쳐진 하늘을 담아 낮과 밤, 해질녘과 새벽이 공존한다.

그리고 이 말들을 '소녀 #21' 속 조명을 듣는 소녀가 기다리고 있다. 소녀가 들고 있는 책에도 말이 그려져 있다.

경미 작가는 2006년 독일 여행 중 독일 표현주의 화가 프란츠 마르크의 '파란 말'에 매료되면서 말을 그리기 시작했다.

금박과 은박, 유리가루 등 빛을 반

## 적토마부터 체스말까지...병오년

### 맞아 화랑가에 달리는 말그림

회화·조각·사진으로 만나는 말의 다양한 얼굴들



말은 온순하면서도 힘이 세 오래 전부터 인간과 함께 생활하며 인간에게 도움을 줬다. 이 때문에 예전부터 그림의 주인공으로도 많이 등장하곤 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서인에

서 진행 중인 특별전 '말 달리자 K아트에는 14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와 사진, 조각 등으로 다양한 말을 구현했다.

이 전시에 나온 안소영 작가의 '백

지 위입장에 관한 단상#1', '백지 위입장에 관한 단상#2'는 말을 탄 여인과 숲이 나오는 르네 마그리트의 '백지 위입장'(Le Blanc-Seing)을 오마주한 연작이다.

서초구 반포동 갤러리 스페이스엘

에서는 정미 작가 초대전이 오는 1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열린다.

정미 작가는 2006년 독일 여행 중 독일 표현주의 화가 프란츠 마르크의 '파란 말'에 매료되면서 말을 그리기 시작했다.

금박과 은박, 유리가루 등 빛을 반

사하는 소재를 사용해 작품에 입체감과 화려한 빛을 더한다.

발달장애 작가들과 이들의 어머니들로 이뤄진 인터넷 커뮤니티 '그림 엄마'는 말을 주제로 한 특별전 '붉게 힘차게 말을 경기 양평군에 있는 러쉬 두물머리점 러쉬빌리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해외 발달장애 아티스트 16명을 포함해 발달장애 작가 88명과 발달장애 작가의 어머니 작가 2명, 커뮤니티 유연자인 한젤마 작가 등이 총 128점의 작품을 내놨다.

## '힙불교' 인기에도...조계종 출가자 수 5년째 100명 밑돌아

작년 예비 승려 99명 그쳐...단기 출가학교 확대 등 추세 반전 노력



최근 몇 년 새 불교가 젊은 세대 사이에 새로운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지만, 이 같은 '힙불교(힙한 불교)' 바람도 아직 출가자 수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지난해 조계종에서 행자교육을 마치고 사미계(75명) 또는 사미니계(24명)를 받은 출가자는 모두

99명이었다.

2024년보다는 18명이 늘었지만, 100명 문턱을 넘지 못하고 5년 연속 두 자릿수에 그쳤다.

사미(남성)와 사미니(여성)는 출가한 예비 승려로, 이후 4년의 교육을 거쳐 구족계를 수지해야 정식 승려인 비구와 비구니가 된다.

조계종 출가자 수는 20년 전인 2005



년에만 해도 319명으로, 300명을 웃돌았으나 2010년 무렵 200명대로 줄었고, 2016년 157명으로 감소한 뒤 2017~2020년 100명대에 머물렀다.

이후 2021년엔 99명으로 100명 아래로 내려선 후 2022년 61명, 2023년 84명, 2024년 81명 등으로 100명 아래에 서 등장하고 있다.

조계종보다 규모가 작은 다른 불교 교단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출가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태고종의 경우도 "10~20년 전과 비교하면 출가자 수가 3분의 1 수준"이라고 전했다.

천태종도 "교세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출가자 수는 정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교 출가자 수의 감소는 저

출생과 전반적인 탈종교화 등 사회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개인의 의지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외부 요인 때문에 출가하는 사례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승려 수자 감소는 불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불교계도 출가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출가자 수 감소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예비 출가자들을 찾아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가에 대한 경직된 이미지나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출가 입문서나 '힙한 출가' 다큐멘터리를 선보인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불교박람회 등을 통해 불교에 관심 있는 청년 세대들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아울러 출가 수행을 미리 체험해보고 싶은 이들을 위해 월정사 등 개별 사찰 차원에서 운영해 왔던 단기 출가학교도 교구 본사들을 중심으로 종단 차원에서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조계종은 밝혔다.